

시 동 향

디지털전자산업 동향



우성재
KEA R&D Center
그룹장/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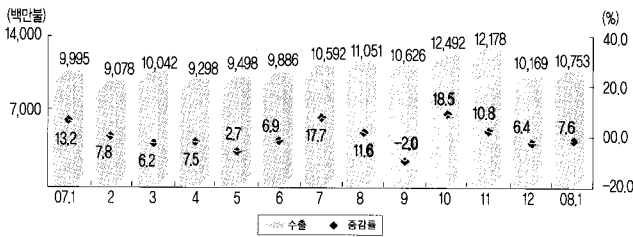
2008년 1월 수출은 107.5억불, 전년대비 7.6% 증가하였다.

D-TV 세계수요 확대로 LCD-TV(68.1%), 칼라TV부품(44.4%)이 급증하면서 가전은 지난달에 이어 9%대의 성장을 기록,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대형냉장고(17.6%)도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조명기기(22.4%)도 성장세 지속하였다.

그러나, 에어컨(-46.4%), 전자레인지(-35.9%), 음향기기부품(-9.3%) 등은 해외생산 증가, 가격경쟁력 하락 등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디지털전자 월별 수출 추이



주요 수출 증가국 및 증가 품목

주요 증가국	주요 감소국
폴란드(1억불, 161.8%), 헝가리(0.2억불, 90.7%), 아랍에미리트(0.2억불, 69.5%), 이란(0.5억불, 35.5%), 러시아(0.3억불, 32.6%), 인도네시아(0.2억불, 28.3%) 등	미국(1.2억불, -23.9%), 대만(0.2억불, -15.1%), 호주(0.2억불, -14.8%) 등

2008년 1월 수입은 62.6억불, 전년대비 17.2% 증가하였다. 국내생산이 미미한 CRT-TV(0.3천만불), 카스테레오(2천만불), 마이크 및 헤드폰(0.8천만불), VCR(1천만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외산 업체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로 대형냉장고(0.1천만불), 에어컨(0.4천만불)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독보적인 LCD-TV(-41.7%), 세탁기(-13.3%) 등은 감소하였다.

주요 수입 증가국 및 증가 품목

주요 증가국	주요 감소국
인도네시아(0.2억불, 238.7%), 태국(0.1억불, 39.3%), 중국(1.9억불, 19.5%) 등	미국(0.2억불, -8.4억불), 대만(4백만불, 28.8%) 등

2008년 1월 무역수지는 44.8억불, 전년대비 3.5% 감소하였다.

수출이 크게 증가한 칼라TV(39.6%)와 대형냉장고(17.5%)의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조명기기(44.4%)는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된 음향기기는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휴대폰(30.1%)의 무역흑자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보기기(-34.5%)의 흑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산업용기의 무역수지는 증가하였다.

메모리반도체(-51.2%)의 수출감소·수입증가로 반도체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LCD패널(41.1%)의 흑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의 무역수지 흑자는 크게 감소하였다.

디지털전자 월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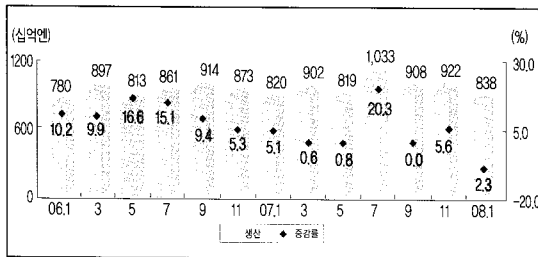
구분		2008년	2007년	
		1월	1월	1~12월
수출	전체산업	32,861(17.0)	28,096(20.8)	349,926(7.5)
	디지털전자	10,753(7.6)	9,995(13.2)	124,904(8.9)
수입	전체산업	36,241(31.5)	27,566(19.4)	329,937(6.6)
	디지털전자	6,265(17.2)	5,344(14.4)	67,761(10.1)
무역수지	전체산업	-3,380	530	19,989
	디지털전자	4,488	4,651	57,143

일본 IT 부품 · 소재 산업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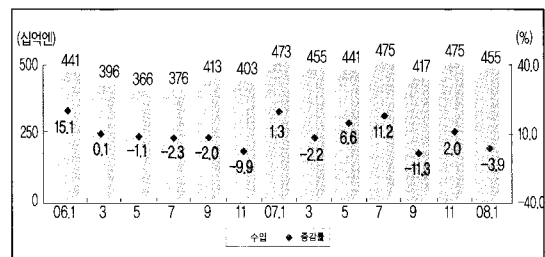
기구부품(7.7%)이 가장 큰 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반도체소자(5.9%), 디스플레이(4.8%), PCB(3.4%) 순이다. 반면에, 수동부품(-2.9%), 변환부품(-9.1%), 기타부품(-6.6%)은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했다.

기타부품(-22.1%)이 가장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반도체소자(-6.0%), 기구부품(-5.2%), 기기부분품(-4.7%), 변환부품(-3.2%) 순이다. 반면에, PCB(3.6%), 디스플레이(76.9%), 수동부품(6.4%)은 플러스 성장을 시현했다.

일본 IT 부품 · 소재 월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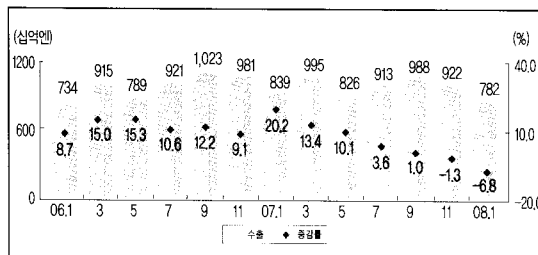
일본 IT 부품 · 소재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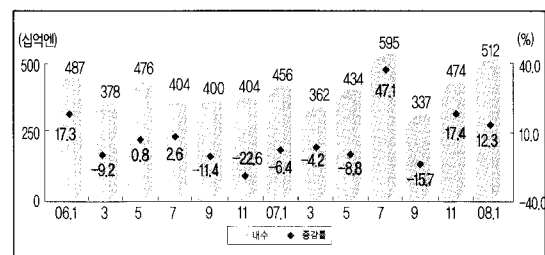
디스플레이(-23.8%)가 가장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PCB(-3.3%), 수동부품(-3.0%), 변환부품(-2.3%), 반도체소자(-1.9%), 기기부분품(-1.9%) 순이다. 반면에, 기구부품(5.7%), 기타부품(1.2%)은 플러스 성장을 시현했다.

IC(18.1%)가 가장 큰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반도체소자(15.1%), 디스플레이(8.9%), 기구부품(6.6%), PCB(6.2%) 순이다. 반면에, 수동부품(0.0%)은 보합, 변환부품(-5.3%), 기타부품(-8.7%)은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했다.

일본 IT 부품 · 소재 월별 수출 추이



일본 IT 부품 · 소재 내수 추이



08. 4월 휴대폰 수 · 출입 동향

'08.4월 디지털전자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8.9% 증가한 110.6억불, 수입은 15.2% 증가한 65.6억불로, 무역수지는 45억불 흑자를 기록

수출은 휴대폰(48.8%)의 독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전(13.8%)과 전자부품(12.9%)도 회복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은 18.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전자부품은 평판디스플레이(34.5%)의 증가세 지속과 Nand Flash 호조에 따른 메모리반도체(-2.4%) 감소율 둔화로 6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

가전은 칼라TV(26.5%), 대형냉장고(29.0%) 등 Premium 제품의 선전으로 '06년 8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음

최근 경기침체와 경기과열 논란을 보였던 미국(47.4%)과 중국(28.1%)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디지털전자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

수입도 가전(19.0%)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월대비 15.2% 증가하였음

- 정보통신산업용(12.0%), 전자부품(16.5%)

1. 수출입 실적 평가

'08년 4월 디지털전자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8.9% 증가하였으며, 특히 휴대폰 대선전으로 '04년 12월(19.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휴대폰은 북미, 유럽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지역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디지털전자 수출을 주도하였음

선진국 3G 전환수요 증가와 개도국 가입자 급성장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발빠른 Premium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음

최근 모바일 TV폰 등 첨단기능 제품의 출시 확대 등으로 세계 휴대폰 시장을 적극 공략

그동안 포함세를 보였던 가전과 전자부품도 두 자릿수 증가세로 회복하며 디지털전자 수출신장에 기여

가전은 '05년 이후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며 감소세 둔화 및 증가세로 반전하였음

Full HD LCD-TV, 대형냉장고 등 Premium 제품은 국내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전자부품은 '07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부진으로 증가세가 주춤하였으나, 평판디스플레이의 선전과 반도체 감소율 둔화로 실적이 다소 개선되고 있음

최근, 단가하락이 진정되고 있고, 본격적인 Nand Flash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반도체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인쇄회로와 축전지 등 주요 범용부품의 실적도 호조가 이어지며 수출증가율을 회복하고 있음

하반기에는 메모리반도체 회복이 기대되며, 평판디스플레이도 국산제품의 세계시장 지배가 지속되고 있어 전자부품이 디지털전자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2. 수출입 전망

■ 대외 시장 여건

• 북경올림픽 개막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최근 거품 논란을 일으켰던 중국경제가 다시 활기를 띄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증산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휴대폰, 고화질 LCD-TV, 대형냉장고 등 국산제품의 중국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

• 미국도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면서 Subprime사태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며 경기가 회복될 전망

■ 수출 전망

〈휴대폰〉 : 유럽형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출 성장세 지속

• 세계 최초로 유럽의 두가지 모바일TV 기술표준(DVB-CBMS, OMA-BCAST)을 모두 지원하는 DVB-H폰 출시 등 Premium제품 수출호조로 성장세 지속 전망: 기능 및 라인업 강화로 세계시장 주도

• 다양한 기능의 콘텐츠 TV, 초슬림 Full HD TV 등으로 라인업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메모리반도체〉 : 단가하락 진정, 수요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

• Nand Flash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으

며, 가격도 일부 회복·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감소율 둔화 및 실적개선 전망

〈디스플레이〉 : 세계시장 수요확대, 기술우위로 큰 폭의 증가세 유지

• 대형 TV패널을 중심으로 LCD는 물론 PDP패널 모두 수요확대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업체별 국내 휴대폰시장 점유율

